



**애경산업 2080, 국가유공자·아동 구강용품 나눔**

태광그룹 계열사 애경산업이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2080이 전하는 전 세대 미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 관리 브랜드 2080 대표 제품을 기부했다. 기부 규모는 약 6억 원이며 어린이용 구강 건강 제품을 비롯해 치약, 칫솔을 각각 2080개로 구성했다.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와 부스리기사랑나눔회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역 아동센터 아동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애경산업



**동아씨오그룹, 소아 심장병 환우 위해 3억 기부**

작은 변화에도 생명의 기로에 서는 어린 생명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뻗어온 일호재단이 어린이 환자와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동아씨오그룹의 비영리 공익재단 일호재단은 지난 8일 한국심장재단에 3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치료에 부담을 겪고 있는 소아 심장병 환우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도록 돕는다. /동아씨오그룹



**하나금융그룹, '히어로 워드 하나'로 군 장병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사기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히어로 워드 하나(Hero with Hana)'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히어로 워드 하나 프로그램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공상 장병의 가족 및 공상을 입은 장병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군 복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



**NH농협은행, 모두투어와 금융·여행 융합 본격화**

NH농협은행은 국내 대표 여행기업 모두투어와 금융과 여행 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여행 특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출시 ▲디지털 기반 금융·여행 연계 서비스 확대 ▲고객 맞춤형 혜택 제공 및 공동마케팅 강화 ▲금융·여행 산업 간 상생 협력 모델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농협은행

**인사** ◆**금오공과대학교** ▷소직인사 △기획협력처장 겸 신문방송사주간 임상훈 △미래교육혁신본부장 겸 AI교수 학습센터장 이희진 △도시관리학과 과장양재교육원장 이경준

**부음** ▲황경목씨 별세, 백재훈(광주MBC PD)씨 장인상=9일, 광주 VIP장례타운 VVIP 101호, 발인 11일, 오전 9시, 062-521-4444 ▲맹명옥(향년 91세)씨 별세, 김현근(열린연세정형외과 원장)씨 모친상, 전현주(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씨 시모상 = 8일,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00

# CJ제일제당, 희귀질환 성인에 '햇반 저단백밥' 공급

질병청·희귀난치연합회와 MOU 선천성대사이상 특수식 지원 확대 성인도 7월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고원가 특수공정에도 생산 지속

CJ제일제당이 선천성대사이상 희귀질환자를 위한 특수식 지원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한다.

CJ제일제당은 9일 질병관리청,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희귀질환자 특수식 구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페닐케톤뇨증(PKU) 등 선천성대사이상 희귀질환을 앓는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들도 저단백 특수식인 '햇반 저단백밥'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햇반 저단백밥 제품. /CJ제일제당

선천성대사이상 희귀질환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해 특정 아미노산이 체내에 축적되는 질환이다. 환자들은 장애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평생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며 일반 쌀밥도 자유롭게 먹기 어렵다. 그동안 정부 지원은 만 19세 미만 환

자에 한정돼 성인 환자들은 남은 물량을 개별 구매하거나 해외 제품에 의존해야 했다. 일부 제품은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면서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번 협약으로 성인 환자들은 온라인 전용 창구인 '희귀질환헬프라인'을 통해 분기별로 특수식 구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주문 시스템 구축과 신청 자격 관리를 담당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구매 접수와 주문 지원 업무를 맡는다. CJ제일제당은 제품 생산과 공급을 책임진다. 지원체계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2009년부터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아동을 위한 '햇반 저단백밥'을 생산해 왔다. 이 제품은 일반

햇반 대비 단백질 함량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쌀 도정 이후 단백질 분해에만 24시간이 소요되는 특수 공정을 거쳐야 해 생산 시간은 일반 제품보다 10배 이상, 제조 원가는 2배 이상 높다.

생산 효율성과 수익성이 낮음에도 CJ제일제당은 희귀질환 환자 지원을 위해 생산을 지속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생산량은 약 200만 개에 달한다.

김찬호 CJ제일제당 전략지원부문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인 환자들에게도 햇반 저단백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 CJ대한통운,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도입

대전 태평시장에 접수센터 설치 구매 상품 집까지 배송하는 서비스 상인 택배 접수·발송 부담 완화

CJ대한통운이 상생형 물류모델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를 지원한다.

CJ대한통운은 대전 태평시장에 배송접수센터를 설치하고 시장에서 구매한 상품을 집까지 배송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CJ대한통운이 지난해 12월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체결한 전통시장 물류 상생 협업모델 구축 업무협약 이후 추진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다. 소비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지역 상인은 택배 접수·발송 과정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 방식도 간편하다. 고객이 시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한 뒤 택배 발송 신청만 하면 간편하게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상품은 배송접수센터



CJ대한통운은 대전 태평시장에서 배송접수센터를 처음 도입했다.

에서 근무하는 배송매니저가 각 점포를 방문해 수거한 후 CJ대한통운 물류망을 통해 전국 어디든지 배송한다.

이번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대전 태평시장은 인근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 특히 공동 집화장 운영 경험과 자체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QR접수를 연계한 물류 상생모델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거점으로 평가됐다.

CJ대한통운은 대전 태평시장을 시작으로 전상연과 협업을 이어가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상품 전시회 등으로 협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광동제약, 준법·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사내 '윤리데이' 제정 준법·윤리경영 강화

광동제약은 사내 '윤리데이' 제정과 컴플라이언스 위원 격상을 통해 준법경영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사내 윤리데이 제정에 맞춰 지난 2일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식 및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사령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어 위원회를 대상으로 사내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CP(Compliance Program) 교육과 내부심사원 기초 교육이 차례로 실시됐다.

회사는 이번 윤리데이 제정을 계기로 기존 부패방지 내부심사 조직인 '부패방지소위원회'를 '컴플라이언스위원회'로 격상하고, 내부 감시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는 향후 각 조직 내에서 자율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CP 및

ISO 내부심사-리스크평가 관리 교육, 컴플라이언스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광동제약은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기존 CP실을 부문 단위 조직으로 격상하고 대표이사직속으로 편제함으로써 조직의 독립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또 2023년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공고히 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윤리데이 제정을 기점으로 공정하고 책임있는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자율준수문화를 광동제약의 기업문화로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LX판토스, 물류현장 폭염 리스크 줄인다

협력사 100곳 근무자 3000명 대상

LX판토스가 혹서기 물류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100개 협력사 현장 근무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신형 작업복과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LX판토스는 이번 지원을 통해 물류현장 근무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9일 LX판토스에 따르면 신형 작업복은 통기성과 흡습·속건 기능을 갖춘 경량 원단의 반팔 칼라 티셔츠로 제작했다. 헝광 오렌지 컬러와 반사피를 적용해 작업자의 시인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작업복 위에 안전조끼를 별도로 착용해야 해 열감과 착용 부담이 있었지만 신형 작업복은 안전조끼의 기능을 일체화해 조끼 착용 부담을 줄이고 작업 시 쾌적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식염포도당, 쿨토시, 쿨타월, 체



LX판토스가 협력사 현장 근무자들에게 지원하는 하절기 신형 작업복.

감온도계 등 안전용품도 함께 지급해 작업자의 수분·전해질 보충과 체온 관리, 현장 온습도 관리를 지원한다.

LX판토스 관계자는 "혹서기 물류현장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이 커지는 만큼 온열질환 방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기보, 인천 中소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인천시·인천TP, 기업자금 협약 우대보증·저리융자 사업화 뒷받침

기술보증기금이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전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전환 기업자금 지원사업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술이전기업의 원활한 사업화와 기술전환을 지원하고 인천시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우대보증을 공급하고 ▲보증비율 상향(85→9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 0.3%p ↓,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기술전환 기업자금을 신설해 저리 융자를 지원하

고 인천TP는 지원대상기업 선정과 추천 업무를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가운데 기보의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았거나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최대 30억원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이전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내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중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기술이전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